

【논 문】

공동묘지(共同墓地)로의 산책
- 심연수, 유치환의 시에 재현된
하얼빈 소재 외국인 공동묘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

조 은 주*

【 차 례 】

- I. 일제말기 만주 관광과 공동묘지(共同墓地) 코스
- II. 「露人共同墓地」와 백계리인(白系露人)의 비극적 운명
- III. 「우크라이나 寺院」과 망국(亡國) 백성들의 진정한 ‘나라’ 찾기
- IV. 맺음말 : 피식민지 지식인 주체의 하얼빈 공동묘지 산책

국문초록

이 글은 ‘공동묘지’를 중심체재로 삼은 심연수의 시 「露人共同墓地」, 유치환의 시 「우크라이나 寺院」에 내재된 문학적 정신과 의미를 구명한 것이다.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하얼빈 남강구(南崗區)에 위치한 리인공동묘지와 우크라이나 사원(우크라이나인 공동묘지 內)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공동묘지’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었다. 1920-30년대 일본과 조선에서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묘지의 공원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912년 조선 총독부의 <墓地火葬埋葬及火葬取締規則>에서 더럽고 위험한 공간으로 규정되었던 묘지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봄을 이루었던 만주 관광 코스에 ‘묘지’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공원묘지’로서의 ‘묘지’는 매우 제한적 코스였다. 관광의 대상으로서의 ‘묘지’는 대부분 빈 무덤들, 즉 전쟁 유적지와 전사자를 위한 참배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주 관광에서 전적지의 묘지가 아닌 공동묘지를 재현한 장면에서는 특별한 시선이 읽힌다. 공동묘지를 바라볼 때 제국의 시선을 내

* 아주대학교 강의교수

면화한 ‘관광자’로서의 주체가 아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피식민지 지식인 주체로서의 시선을 보여준 것이다. 화려한 국제도시로 부상되었던 도시 하얼빈(哈爾濱)의 어두운 이면은 러인공동묘지(심연수)와 우크라이나인 공동묘지(유치환)에서 폭로된다. 거지로 전략해 제국의 관광자에서 경예를 표하는 백계러인(白系露人), 타국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며 희생된 우크라이나인 등은 민족협화(民族協和), 왕도주의(王道主義)라는 만주국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정확히 진단한다. 두 민족은 제국주의와 식민 자본주의의 타자이자 나라를 잃고 몰락한 소수민족을 표상한다. 심연수와 유치환은 하얼빈 중심가에 위치한 두 민족의 공동묘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정신의 안주지”로서의 진정한 공동체 재건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주제어 : 심연수, 유치환, 만주, 하얼빈, 공동묘지, 관광, 산책, 공동체

I. 일제말기 만주 관광과 공동묘지(共同墓地) 코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이색적인 풍경을 ‘무덤’에서 찾는다. 바가지를 뒤엎어 놓은 것처럼 생긴 봉분의 모양이 “놀라운 화젯거리”¹⁾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대도시 근처 야산을 뒤덮고 있는 무덤의 숫자가 실로 엄청났기 때문이다. 경성 주변의 민둥산에 예외 없이 빼곡히 들어찬 무덤은 돌을새김한 수많은 혹처럼 보였고²⁾ “심하게 얽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³⁾고 묘사될 정도였다. 당시 조선의 도시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공간을 할애했던 셈이다. 이는 ‘근대화된’ 외국인의 눈에 기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비춰졌다. 무덤은 조선인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은 조상 숭배의 강박관념으로 “파괴적인 영향”⁴⁾을 주는 악습,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다.⁵⁾ 일제 역시 마찬가지로

1) 에밀 부르다레·정진국 옮김,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168쪽.

2) 에밀 부르다레·정진국 옮김, 2009, 앞의 책, 169쪽.

3) H.N. 알렌·신복룡 옮김, 1999, 『조선건문기』, 집문당, 130쪽.

4) J.S. 게일·신복룡 옮김, 1999, 『전기의 조선』, 집문당, 65쪽.

였다.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는 <墓地火葬埋葬及火葬取締規則>(이하 ‘묘지규칙’)을 발표했다.

묘지를 개설, 변경, 폐지하거나 화장장을 신설, 증축, 폐지할 때 또한 사체나 유골을 매장하고 화장할 때 경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묘지규칙>은 묘지가 “공중위생에 해가 되”는⁶⁾ 공간임을 명시한다. 묘지는 질병의 진원지이자 인가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할, 더럽고 위험한 공간이다. 계몽담론과 위생담론이 관통하는 <묘지규칙>은 뒷자리를 각별하게 여기던 전통적 풍속은 물론이거니와 공동묘지에 모여 살기 시작한 빈민층과 그로 인한 폐해, 묘적과 묘표 관리부실, 각종 비리 사건(예컨대 이태원 공동묘지 사건)⁷⁾ 등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했다. <묘지규칙>은 다각도로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며 1915년부터 1940년까지 8차례 개정되었지만 사설묘지와 암매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⁸⁾ 1930년대 대대적으로 ‘공원묘지’ 조성과 공동묘지 ‘미화’ 작업⁹⁾이 강조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불결한 것’으로 규정되던 묘지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심지어 아름다운 장소로 재규정되기에 이른다.

1929년 신당동과 아현동의 일본인 묘지와 화장장이 폐지된 이후 홍제동에는 일본인 ‘공원묘지’가 조성되었다. 일본인 서울 안내 책자에서 이 묘지는 “질서적이고, 풍치적이고, 위생적이고 (...) 인간이 최후로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전 완비한 묘소”¹⁰⁾로 소개된다. 서울 당인리에 있던 <외인묘지>를

5) J.S. 개일·신복룡 옮김, 1999, 앞의 책, 61쪽.

6) 『조선총독부관보』 제544호, 1912.6.20.; “墓地, 火葬場 規則”, 『매일신보』, 1912.6.30. ; 정대영, 2014, 「일제 식민지기 장묘제도의 변화와 ‘근대성’의 이면」,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쪽 참고.

7) 공동묘지로 이전하기 위해 화장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감추고 1인당 8원에서 15원까지 요금을 착복한 사건으로 1936년 발각, 검거되었다. 「白骨에서 勞賃詐取로, 梨泰院 墓地事件은 去益黑幕, 府衛生課書記도 被檢」, 『동아일보』, 1936.6.9.

8) 묘지 면적의 제한을 풀어주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개인 소유지(선산)에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화장(火葬)시 비용을 대납해주는 등의 완화된 방식을 취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정대영, 2014, 앞의 논문, 82~104쪽.

9) “瑞山 共同墓地 美化키로 計劃”, 『조선일보』, 1933.11.27.; “墓地美化, 統制策 平壤府稅意考慮”, 『동아일보』, 1938.6.16.

둘러 본 기사 역시 비슷한 감흥을 들려준다.

일광에 반사하여 더욱더 精彩를 발하는 白大理石의 여러 石碑와 청동의 구리 十字架들 기둥에 아름답게 미술의 精華를 다하여 만든 듯한 ‘성모마리아의 상’, 그리고 무덤 한가운데에 깨끗한 돌로 碑石을 하여겐 간 품과 무덤 앞마다 가을 국화, 봄 진달래, 장미꽃 등을 수북히 심어 마치 공원 비슷하게 꾸미어 놓은 모양, 묘지 갖지 않게 생각된다.¹¹⁾

하얀 대리석과 청동 십자가, 성모 마리아 상 등은 완성도 높은 미술품 못지않게 아름답고 비석 앞에 만발한 꽃들은 여느 공원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묘지 갖지 않게 생각’되는 이 묘지들은 죽음의 이미지와 무관한 공간처럼 서술된다. 공동묘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들이 묻힌 친숙한 공간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가령 미아리 공동묘지는 소설가 최서해가 묻힌 곳, 단성사 사장, 동양극장 주인 등과 같은 거물급 인사가 묻힌 곳, 이광수의 어린 아들과 조선일보 주필 서춘의 딸이 안타깝게 요절한 뒤 묻힌 곳이라는 식이다.¹²⁾ 기자는 묘지를 둘러보고 묘지명을 읽고 그들의 생애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담담히 적어 내린다. 묘지는 여행의 여정 혹은 목적지가 되고 서사가 읽히는 장소로 부상한다.¹³⁾

조선의 공동묘지 공원화의 모델은 1923년 일본에 건설된 공원묘지 ‘다마영원(多磨靈園)’일 것이다. 다마영원은 도쿄의 서부 교외에 위치한 최초의 근대적 공원묘지이다. 다마영원의 설립 구상과 개원 과정을 살펴보면 ‘공원묘지’가 도시 계획상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인가와 근접해 있던 묘지는 미관상, 위생상의 이유로 도시의

10) 萩森茂, 1931, 『朝鮮の都市』, 大陸情報社, 102쪽(다카무라 료헤이, 2000,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5, 153~154쪽에서 재인용).

11) 「서울외인묘지」 『삼천리』, 1938.8.

12) 「歲色도 將暮! 미아리 공동묘지 풍경」 『조광』, 1937.12.

13) 羅惠錫, 「西洋藝術과 裸體美, 歐美 一週記 續」 『삼천리』 제5권 제10호, 1933.10.1.; 路星, 「東京文人墓」 『삼천리』 제7권 제5호, 1935.6.1.; 戚大勳, 「作家日記, 外人墓地有感」 『삼천리문학』 제2집, 1938.4.1 등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외곽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급속도로 이뤄진 ‘도시화’와 인구 증가는 매장 공간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외곽에 설치되었던 묘지는 거대하게 팽창한 도시의 내부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다시 이장(移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도시 내의 묘지를 ‘묘지 같은 얇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그 구체적 방안이 바로 공원묘지(公園墓地)였다.¹⁴⁾ 다마영원의 담당자 이노시타 기요시(井下清 : 1884~1973)는 유럽과 미국의 아름다운 공원묘지를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미의 공원묘지 역시 대도시 성장에 따른 고안물이었다. “죽음은 공포와 위협이 아니라, 평온함과 위안, 휴식”이 되고 공동묘지는 “죽은 이와 산자 모두를 위한 정원”¹⁵⁾이 된다.

1930년대 봄을 이룬 만주 관광 코스에 ‘묘지’가 들어가 있었던 점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1920~30년대 일본과 조선에서 공동묘지가 공원화되던 양상을 염두에 둘 때 묘지는 주요한 관광의 장소였을 것이다. 춘해, 나혜석, 심연수, 유치환, 함대훈, 엄시우, 이효석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만주 관련 텍스트에서 ‘공동묘지’ 체험을 들려준바 있다. 그런데 선만(鮮滿) 공식 관광루트와 관광 안내서, 만주 수학여행 일정을 살펴보면 만주 관광 코스에서 ‘공원묘지’로서의 ‘묘지’는 매우 제한적 코스였음을 알 수 있다. 관광의 대상으로서의 ‘묘지’는 대부분 빈 무덤들, 즉 전쟁 유적지와 전사자를 위한 참배지였다. 『여정과 비용개산』(1932~1938)에서 소개된 ‘만선일주코스’¹⁶⁾를 비롯하여 중앙불교전문학교(1935),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1936), 나라고등사범(1939)의 수학여행 일정을 참고하면¹⁷⁾ 주요 방문 도시로는 청

14) 이은경, 2014, 「근대 일본 공원묘지의 탄생」 『동양사학연구』 127, 동양사학회, 341~359쪽.

15) 황주영, 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8쪽에서 재인용.

16) 김백영·조정우, 2014, 「제국일본의 선만(鮮滿) 공식 관광루트와 관광안내서」 『일본역사연구』 제39집, 일본사학회, 42~43쪽.

17) 우미영, 2010, 「전시되는 제국과 피식민 주체의 여행 -1930년대 만주수학여행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8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49~50쪽.; 임성모, 2011,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수학여행 -네트워크와 제국의식」 『동북아역사논총』 31호, 동북아역사재단, 171~172쪽.

진, 목단강, 대련, 안동, 봉천, 신경, 무순, 여순, 하얼빈 등이 꼽힌다. 이 코스에 ‘白玉山 表忠塔’(여순), ‘奉天大會戰 忠靈塔’(봉천), ‘寬城子’(신경), ‘南嶺’(신경), ‘沖·橫川 兩志士の 碑’(하얼빈)는 반드시 포함된다. 이러한 근대 민족주의적 문화의 상징인 무명용사의 기념비와 무덤¹⁸⁾은 만주 관광이 궁극적으로 제국 의식을 배양하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일종의 성지 순례”¹⁹⁾였음을 예증한다.

하얼빈은 일본의 전쟁 유적지는 아니었기에 수학여행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²⁰⁾ 1934년판 『여정과 비용개산』에 간략히 소개는 되었지만 만주일주코스²¹⁾에 명시된 것은 1938년판에 이르러서이다.²¹⁾ 하얼빈은 이국적인 정취를 지닌 유럽 문화 체험지로 표상되었을 뿐, 제국의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일 터. “동양의 모스크바”,²²⁾ “露人の 도시라는 느낌”,²³⁾ ‘하르빈’이라는 도시명에서 풍기는 “이국냄새”,²⁴⁾ “인종전람회장”²⁵⁾ 등의 표현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하얼빈(哈爾濱)은 50개 이상의 민족 집단과 45개의 언어가 혼재된,²⁶⁾ “만주국 전체의 국제성을 표상”²⁷⁾하는 도시였다. 1934년 인구 50만의 도시 하얼빈에는 만주인 42만 명, 러시아인 2만명, 일본인 1만6천 명, 조선인 6천여 명 등이 살고 있었는데 러시아 양식의 건축물이 많았고 거리의 간판, 광고판, 안내문 다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²⁸⁾

18)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 2003,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3, 29쪽.

19) 임성모, 2011, 앞의 논문, 178쪽.

20) 우미영, 2010, 앞의 논문, 48쪽.

21) 김백영·조정우, 2014, 앞의 논문, 45쪽.

22) 엄시우, 「哈爾濱의 外國情緒」 『만선일보』, 1940.5.23~24.

23) 안용순, 「北滿巡旅記」 『조선일보』, 1940.2.28~3.2(소재영 편, 1989, 『간도유랑 40년』, 조선일보사, 314~315쪽).

24) 엄시우, 1940, 앞의 글.

25) 홍종인, 「哀愁의 하르빈」 『조광』, 1937.8.

26)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6쪽.

27) 김경일·윤희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78쪽.

28) 조은주, 2013,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 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2~17쪽.

특히 조선인 작가의 하얼빈 기행문에서는 백계러인(白系露人)이 운영하는 카페나 카바레, 댄스홀의 풍경이 여러 번 재현된다. 하얼빈에 간 작가들은 비공식적으로 하얼빈의 유흥문화를 체험했고 그것이 지닌 퇴폐주의적 면모를 인상적으로 조명한 것이다.²⁹⁾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만주 체험을 재현한 몇몇 조선인 작가들은 왜 전적지나 전사자의 기념비가 아닌, 혹은 퇴폐적 카바레의 풍경이 아닌, ‘묘지’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일까.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춘해, 나혜석, 심연수, 유치환, 함대훈, 엄시우, 이효석은 공통적으로 하얼빈 소재의 외국인 공동묘지(共同墓地)를 언급했다. 이는 1936년부터 1943년까지 하얼빈에서 운영한 관광버스 노선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당시 노선은 “하얼빈역→중앙사원→ 총령탑→ 二志士之墓→ 孔子廟→ 露人墓地→ 松花江”³⁰⁾으로 연결되는 코스였다. 여행차 하얼빈에 방문한 조선인 작가들은 ‘리인공동묘지(露人墓地)’와 그 근방의 공동묘지를 둘러보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³¹⁾

29) 조은주, 2013, 앞의 논문.

30) 奉天·新京·哈爾濱交通株式會社 共編, 1939, 『滿洲の觀光バス案内』, 大連都市交通株式會社; Japan Tourist Bureau 滿洲支部(奉天), 1939~1943, 『滿支旅行年鑑』, 各年度版; 高媛, 2002, 「‘樂土’を走る觀光バス」,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6』, 岩波書店, 225~229쪽(임성모, 2011, 앞의 논문, 175쪽 참고).

31) 일본과 조선에서의 장묘 제도와 공동묘지 공원화와 관련된 자료는 풍부한 반면 만주국에서 이루어진 묘지 관련 정책은 확인되지 않는다. 간헐적으로 보도된 신문기사의 내용을 참고하면 1934년 안동에서 공동묘지가 부족하던 차에 매장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것, 대련에서 영구 거주하는 조선인이 늘면서 공동묘지 사용이 격증하고 있다는 것, 또 조선인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인 묘지 사용료를 인하했다는 것 등이 확인된다. 「安東縣同胞의 共同墓地解決」, 『동아일보』, 1934.7.24.; 「滿洲を墳墓の地に邦人心理の轉向」, 『滿洲日報』, 1934.11.14(류교열, 2011, 「1930년대 식민지 해방도시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죽음’의 폴리틱스」, 『일어일문학』 49, 대한일어일문학회, 372~373쪽의 번역 참고); 『國境毎日新聞』, 1934.1.17(정일영, 2014, 앞의 논문, 177쪽).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은 “일본의 도시계획이 소화하고 축적해 온 이념과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일대 실험장”(하시야 히로시·김제정 옮김, 2005,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164쪽)으로 평가될 정도로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신경에 방문한 작가들이 도심지에서 공동묘지에 관해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김경재가 신경의 외곽인 관성자 부근의 러시아인 공동묘지를 언급한바(김경재, 「新京有感」, 『삼천리』, 1936.12.1), 공동묘지는 대부분 신경의 외곽 지역에 산재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얼빈의 경우 중심 거리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정책적으로 공원화되었고 주요 관광 코스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심연수와 유치환 역시 하얼빈에서 공원으로 잘 조성된 공동묘지를 산책하면서 자신의 감상을 시로 남겼다. 심연수의 시 「露人共同墓地」, 유치환의 시 「우크라이나 寺院」은 「공동묘지」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두 작품이 하얼빈 남강구(南崗區)에 위치한 러인공동묘지와 우크라이나 사원(우크라이나인 공동묘지 內)을 중심 제재로 삼고 있다는 점 자체도 물론 흥미롭다. 그러나 이미 한국 근대시의 여타 작품에서 「묘지」는 조상의 기록이 영혼의 목소리가 되어 나의 넋을 끌어당기는 공간(김소월, 「무덤」)으로, 구더기가 들끓는 식민지 조선의 알레고리(염상섭, 「만세전」)로, 묵시록적 예언의 흔적을 확인하는 공간(김기림, 「공동묘지」)으로 형상화되어 오지 않았던가. 두 작품이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공동묘지를 바라볼 때 제국의 시선을 내면화한 ‘관광자’로서가 주체가 아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피식민지 지식인 주체로서의 시선을 부각시켜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근대 관광은 철도의 발달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대중화되면서 새롭게 하나의 ‘시선’을 탄생시켰다. 전근대적 관광이 탐험의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해 근대적 관광은 차창 밖의 풍경을 기호화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를 보는 행위가 된다.³²⁾ 특히 일제강점기 만주 관광은 만철(滿鐵)의 성과와 맞물린 식민지로서의 관광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즉 만주 관광은 일본인이 제국주의적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시키는 이미지의 포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척단 시찰 목적으로 만주에 갔던 조선인의 경우도 큰 틀에서는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주의 ‘공동묘지’를 제재로 선택한 텍스트는 피식민지인 주체가 갖는 비판적 거리와 사유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특별해 보인다. 이 죽음의 공간에서 관광은 중단되고 산책이 시작된다.

산책자, 즉 플라뇌르(flâneur)는 벤야민이 19세기 중반 파리의 도시 거리를 한가롭게 배회하는 사람들을 지칭했던 개념이다. 산책자는 스펙터클한 도시의 면모에 매혹되면서도 “군중 속에서 고독을 사랑”하는 자로 묘사되는,

32) 조성운 외, 2011, 『시선의 탄생』, 선인, 14~15쪽.

‘혼자’와 ‘함께’라는 이중적인 욕망의 메커니즘을 내재한 주체이다. 그는 근대적 도시 공간을 향유하면서도 냉정한 미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본의 생산 과정과 속도의 현란함에 저항하거나³³⁾ 고독한 주체되기를 반복하면서도 균중이라는 타자와의 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한다.³⁴⁾ 현실 세계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서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은 채 그 주변부를 맴도는 성향은 위계화된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탈중심적 관찰자로서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준다.³⁵⁾ 이러한 산책자의 이중적, 분열적 태도는 만주국의 식민지-도시 공간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심연수와 유치환이 방문했던 하얼빈(哈爾濱)은 고도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자본주의화와 근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국에 의해 강제로 재구성되며 지배 권력과 문화가 가시화된 ‘식민지-도시’였다.³⁶⁾ 외국인 공동묘지에 놓인 피식민 주체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 사유를 포착하고 의미화하는 순간, 두 시인의 시적 주체는 제국주의적 도시 공간을 탈주하는 상상력을 작동시킨다. 이러한 장면은 무명용사의 기념비에 천착하며 철저히 관광자로서의 시선에 머물렀던 몇몇 일본인 작가의 경우와 명확히 대별된다. 예컨대 신경의 충혼비(忠魂碑)에서 “충혼비 밑에 잠든 존귀한 영령의 하사품 때문에 대륙여행이 시작되었다”³⁷⁾면서 경례를 올리는 德永直, 여순의 러일전쟁 전적비에서 표충탑의 위엄을 “너무 높아서 꼭대기까지 올려다 볼 수가 없었다”³⁸⁾고 묘사한 夏目漱石 등에 의해 일본은 정치, 경제, 문화 방면에서 만주를 근대화시킨 은인 같은 민족으로 호명될 뿐이다.

33) 벤야민·차봉희 역, 1980, 『현대사회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125쪽.; 이성욱, 2002,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성 문제 :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2쪽.

34) 신지은, 2009, 「도시 산책자 : 자기 유희와 함께하기의 경계에서 방랑/황하는 존재」, 『문학과학회』 제6권, 58쪽.

35) 신지은, 2009, 앞의 논문, 62쪽.

36) Nguyen, Thi Hien, 2013, 「동아시아 근대시에 나타난 산책가와 식민지 도시 인식 연구 : 경성, 하노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쪽.

37) 德永直, 1939, 『先遣隊』, 改造社, 194쪽(전화, 2008, 「日·韓·中 작가의 만주기행문 연구」, 『인문과학』 42,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2쪽에서 재인용).

38) 夏目漱石, 1967, 『滿韓とところどころ』, 『漱石全集』 第八卷, 岩波書堂, 203쪽(이금재, 2011, 「나쓰 메 소세키가 본 한국」,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277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에 의해 구축된 만주국의 대표적 국제도시 하얼빈의 이미지를 제국의 관광자로서 그대로 수용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공동묘지를 시상의 중심에 두고 식민지-도시의 피식민 주체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산책자’로서의 시선을 보여주는 심연수, 유치환의 시는 탈제국주의, 탈식민주의의 일환으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심연수, 유치환이 공통적으로 노래한 하얼빈의 외국인 공동묘지(共同墓地)를 통해 두 시인의 텍스트에 재현된 만주 이미지를 읽고 그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피식민지 지식인에게 가능했던 만주 체험의 한 부분을 조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露人共同墓地」와 백계러인(白系露人)의 비극적 운명

심연수(沈連洙 : 1918~1945)는 강원도 강릉군 경포면 태생으로 1925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한 이후 줄곧 만주에서 생활한 시인이다. 그는 1931년 구소련이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집단 이주시킬 때 중국으로 건너갔고 흑룡강성 밀산, 신안진을 거쳐 1935년부터 용정에서 살았고 1945년 왕청현 춘양진 부근에서 사람들과 다투다가 피살된 것으로 전해진다.³⁹⁾ 심연수가 생전에 발표한 시와 기행문, 평문 등은 9여 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 동생 심호수에 의해 향아리에 묻어 간직해 온 유고작품이 공개되었고 동흥중학교, 용정국민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활발하게 창작한 250여 편의 시가 전집⁴⁰⁾으로 출간된 상태이다. 몇 편의 문제작을 제외하고는⁴¹⁾ 중국

39) 황규수, 2008, 「심연수의 삶과 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26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262~290쪽.

40) 황규수, 편저 2008, 『심연수 시의 원전 비평』, 한국학술정보.

41) 예컨대 5월 19일 방문한 신경에서 창작된 시 「신경」에서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를 예찬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문제적인 대목으로 지적된다. 가령 1연에서 “國都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었어라 / 街頭에 가고오는 五族의 우습소리 / 이아니 王道樂土 다른데 없으이다”와 같은 구절은 ‘오족’, ‘왕도낙토’ 등의 시어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어

조선족 문단에서 심연수는 운동주와 쌍벽을 이루는 “일제 암흑기의 대표적 인 저항시인”⁴²⁾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학계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심연수의 시는 민족의식, 항일정신, 유랑의식, 고향의식 등의 테마로 연구되고 있다.⁴³⁾

심연수는 1940년 5월 5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그의 여정은 ‘용정→ 두만강 → 원산 → 금강산 → 서울 → 개성 → 평양 → 신의주 → 대련→ 여순 → 봉천 → 신경 → 하얼빈 → 목단강 → 용정’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17일간의 대장전을 무려 65편이나 되는 기행시조로 남겼다. 심연수는 창작일시를 작품에 꼼꼼히 적어두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여행의 일정과 각 방문지에서 받은 감상이 어떤 시로 탄생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수학여행 일정별 창작 작품은 아래와 같다.

5월 5일	「떠나는 길」, 「國境의 하로밤」
5월 6일	「東海」
5월 7일	「元山埠頭에서」, 「東海 北部線 車안에서」, 「外金剛驛」, 「溫井里」, 「舊萬物相」, 「溫井里的하로밤」
5월 8일	「神溪寺」, 「金剛門」, 「飛鳳瀑」, 「玉流洞」, 「九龍淵」, 「毘沙門」, 「麻衣太子陵」, 「毘盧峰」, 「銀弟와 金濟」, 「妙吉山」, 「麻詞淵」, 「萬瀑洞」, 「長安寺」,

린 나이에 이주한 심연수에게 만주는 고향과도 같이 친숙한 공간이었고 만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존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오족협화와 왕도 낙토라는 만주국의 이데올로기가 표면적으로 볼 때 매우 순수한 이데올로기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심연수가 민족주의자인가 아닌가는 본질을 벗어나는 질문이지만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이라면 그는 당연히 후자에 분류되어야 할 시인이자.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시는 제만 조선인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만주국의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조선을 향한 모국지 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족협화가 등장하는 것만이 친일작품의 준거가 될 수 없다는 논의로 김재용, 2004,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을 참고.

42) 김룡운, 2000, 「문단에 나타난 또 하나의 혜성」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집집』, 연변 인민출판사/김재용, 2006, 『심연수 시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5쪽에서 재인용).

43) 홍윤기, 2006, 「심연수와 운동주의의 비교 연구」 『한국시문학』 17, 한국시문학회, 102~111쪽.

	「長安寺村에서」
5월 9일	「三佛岩」, 「西山大師와 四溟堂碑」, 「望軍台」, 「面鏡台」
5월 10일	「金剛山을 떠나면서」, 「金剛山 電鐵을 타고서」, 「漢江」, 「南大門」, 「北岳山」
5월 11일	「서울의 밤」, 「景福宮」, 「慶會樓」, 「德壽宮」, 「松都」
5월 12일	「滿月台」, 「善竹橋」, 「松都를 떠나며」
5월 13일	「牧丹峰」, 「牧丹台」, 「乙密台」, 「浮碧樓」, 「大同江」, 「箕子陵」
5월 14일	「淸川江」, 「鴨綠江」
5월 15일	「大連港市」
5월 16일	「旅順」, 「遼東半島의 하로」, 「黃海」, 「連京線 밤車」
5월 17일	「奉天」, 「北陵」
5월 18일	「奉天城 우에서」
5월 19일	「新京」
5월 20일	「哈爾賓 驛頭에서」, 「露人共同墓地」, 「松花江」, 「끼다야쓰카의 밤」
5월 21일	「濱綏線 車中에서」, 「牧丹江」
5월 22일	「旅行은 오늘이 끝이다」, 「修學旅行을 맞이고」, 「낮익은 품속의 사랑」, 「龍井 驛頭에서」

심연수가 하얼빈에 도착한 것은 1940년 5월 20일이다. 여행 후 그가 쓴 기행문 「일만리 려정을 답파하고서」에서 하얼빈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된다.

로씨야 사람들의 활발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다. 나는 처음으로 국제도시의 낮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만주 교통맥으로 되고 있는 송화강도 구경하였다. 송화강의 흐름은 그토록 도도하고 세차 보였다. 우리는 먼길에 피곤했던 발을 물에 잠그고 송화강의 노래를 불렀다.⁴⁴⁾

44) 이상규 편, 2004,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심연수 문학편』,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498쪽.

“4학년 3반 심연수”라는 기록이 병기된 것으로 보아 이 글은 학교 제출 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편적으로나마 하얼빈은 활기찬 국제도시로서의 풍광으로 환기된다. 그런데 심연수가 1940년 하얼빈교통주식회사에서 운영 하던 관광버스를 이용했다면 틀림없이 충령탑, 二志士之墓 등을 방문했을 터인데 그와 관련된 언급은 일절 없다. 이는 기행시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연수는 하얼빈역, 露人墓地, 송화강, 하얼빈의 중심거리 까다야쓰카(키타이 스카야)에 대해서만 형상화하고 있다. 4편의 기행시조는 만주어를 유창하게 하는 러시아인, 하르빈의 뱃사공, 이역에 묻힌 러시아인의 영혼, 퇴락한 노점에 앉아 즐고 있는 ‘로시아 노파’를 묘사한다. 혁명기에 러시아로부터 망명하여 하얼빈에 정착했지만 조선인과 더불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으로 전락했던 백계리인(白系露人)의 이미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심연수의 기행시조가 대부분 특정 공간과 관련된 역사의식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 하얼빈은 ‘백계리인’의 역사를 환기시키는 장소로 포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露人共同墓地」는 심연수가 하얼빈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암시해준다.

하루빈 온사람은 이곤을 다본다니
바쓰에 몸을실고 墓地를 찾아갔오
入口에 많은거지 머리숙겨 경예하더라

異域에 뭇인무덤 외롭선 그靈이
파란과 싸호다가 죽은이 이세상을
남은일 다못하고 異域에 뭇어지다

- 심연수, 「露人共同墓地」, 전문(1940.5.20.)⁴⁵⁾

심연수는 하얼빈 역에서 버스를 타고 공동묘지를 보러 간다. 러인공동묘지는 하얼빈 역에 근접한 신시가지 남강구(南崗區)의 東大直街에 위치한 것

45) 황규수 편지, 2008, 앞의 진집, 107쪽.

으로 聖母幀幪教堂(우크라이나 사원) 옆에 있었다. 러인공동묘지는 1958년 하얼빈 동부 黃山 新墓地로 이전되었다.⁴⁶⁾ 언뜻 보면 위의 시는 버스를 타고 이동한 묘지의 입구에 많은 거지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점, 이역에 남겨진 러시아인들의 묘지가 그들의 외로운 삶을 연상시켰다는 점에 대해 차분하게 노래하는 것으로 읽힌다. 압축적인 시조의 형식이 차용되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끼어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다. 나혜석, 엄시우 등의 기행문을 보조적으로 참고하면 당시 러시아인 공동묘지의 풍경과 윤곽이 잡힌다.

여러 知友와 함께 공동묘지를 구경갓섯다. 정면에 있는 납골당 옥상에는 金色 십자가가 번적이고 잇서 멀니서 오는 상여를 보고 鍾을 울너 환영의 意를 표한다. 넓은 묘지에는 形形色色의 墓形이 있고 아직도 푸른 잔디로 있는 곳은 누구의 주인이 될는지 때를 기다리고 있다.⁴⁷⁾

신시가 대직가(大直街)의 북단(北端) 광대한 지역에 지(至)하여 슬라브 인 묘지, 유태인 묘지, 타타르 인 묘지, 조선인 묘지 등이 있는 이 외인 묘지를 바로 그 앞 버스에서 내려 들어서니 당탑(堂塔)이 정문에서 보인다. 그리고 좌우로 십자가를 세운 묘비들이 이름모를 꽃 위에 옛추억 애답게 서 있다. 여기는 전부가 노문자로 적혀있다. 외인의 묘지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묘비에 쓴 묘비명이다. (...) 사후 자기 묘지에 이렇게 꽃나무 하나라도 가꾸어 주는 이가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된 일이라? 하고 나는 한껏 감상적인 기분 에 사로잡혔다. 3시간 후 여기저기 재미있게 쓴 묘비명을 보며 배회하다 가 송화강 구경을 하기로 하고 다시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⁴⁸⁾

금색 십자가로 화려하게 장식된 공동묘지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형형색색의 무덤이 널찍하게 배치되어 있다. 나혜석이 “공동묘지를 구경갓섯다”고 말하고 있듯이 그의 시선은 철저히 관광자의 것이다. 상여가

46) 俞濱洋 主編, 『哈爾濱印象(上)1897-1949』, 中國건축공업출판사, 145쪽.

47) 羅蕙錫, 「쓰비엣露西亞行, 歐米遊記의 其一」 『삼천리』 제4권 제12호, 1932.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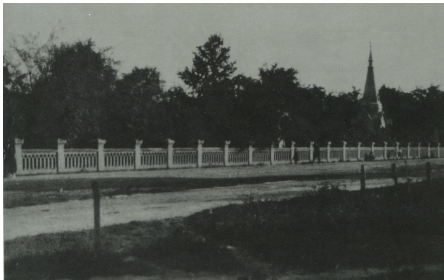
48) 함대훈, 「南北滿洲遍踏記」 『조광』, 1939.7.

들어올 때 십자가가 그들을 환영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공동묘지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묘지는 경쾌하리만큼 가볍고 명랑한 공간이다. “신시가 대작가 북단 광대한 지역”의 “外人墓地”에 “슬라브 인 묘지, 유태인 묘지, 타타르 인 묘지, 조선인 묘지 등이” 있다는 함대훈의 말을 참고하면, 하얼빈의 러인공동묘지는 엄밀히 말하면 ‘외인묘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러인공동묘지에 방문한 작가들은 싫든 좋든 여타 외국인들의 묘지와 조선인 묘지를 보았을 것이다. 조선인 묘지를 보고 간혹 십자가를 그었다고 언급하지만 함대훈 역시 러시아어로 쓰인 묘비와 묘비명에 서 알 수 없는 엑조티즘을 느끼며 “재미있게” “배회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외인묘지’는 3시간을 배회할 정도로 넓은 공간에 조성된 공원묘지였던 것 같다. 하얼빈 관광버스 노선에 공동묘지가 포함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방인근의 감상은 그 초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어디나 그러케지만은 더욱 哈爾濱의 露國人形便을 보면 貧富의 差異가 너무도 甚하다. (...) 거기서 조금더가면 外國人, 共同墓地가있다. 各各땅을 논화 올타리를 치고 돌노쇠로 무덤을 곱게단장하였스며 나무와 꽃을 무덤옆에 심어노코 죽은사람의 寫眞도 틀을잘해서 거러노았다. 朝鮮人의共同墓地도 한편에있서 나는한참이나 정시농코 쳐다보았다. 數千數萬의 무덤 업홀 걸어가며 人生의덧업습 나드쉬히 저렇게 되고야 말 것을 생각할 때 흠홀을 못참었다. 그러고땃땃한 古國을떠나 고생사리 하다가 멀고면- 이런 잇만별 판에 主人업는 무덤속에 못친 同胞의 情景를 生角할 때 窸업시 슬혔다.⁴⁹⁾

방인근은 안태후와 자동차를 타고 “大直街 一帶”의 부호 주택과 외국 영사관 등을 구경하고 이를 “찬란한거리”로 일컫는다. 극락사를 둘러본 뒤 그 인근에 있던 ‘외국인 공동묘지’로 이동했는데 울타리, 나무, 꽃, 사진으로 곱게 단장된 묘지의 풍경을 방인근 역시 인상적으로 기록한다. 여기까지 그의 시선은 나혜석, 함대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방인근은 외국인 공

49) 春海, 「만주여행기」 『조선문단』, 1925.9.



[사진 1] 「露人共同墓地」⁵⁰⁾

동묘지 한켠에 자리 잡았던 ‘조선인의 공동묘지’를 “한참이나 정시농코 쳐다보았다”고 언급한다. 공원묘지의 한적함과 여유로움에 대한 묘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생의 덧없음’과 ‘슬픔’이 덧씌운다. 왜일까. 디아스포라

로서의 모국지향성이 작동된 탓이었을까. 엄시우의 기행문을 통해 유추하면 외인공동묘지에서 조선인의 무덤은 형편없이 볼품없었고 비좁게 맞닿은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¹⁾ 그의 꿈속에 나타난 “鮮系魂靈”들이 통곡하며 “집이배조바나왔습니다”라고 호소했다는 에피소드는, 만주에서 주택난에 시달리던 조선인의 현실에 대한 은유이면서 동시에 조선인 묘지에 대한 간접적 형상화이다.

이러한 기행문들을 염두에 두면 심연수의 시조는 기실 많은 함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연수는 하얼빈에 처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작성한 시 「끼다야쓰카의 밤」에서 “변화한” 중심거리 ‘끼다야쓰카’를 놓고 가난한 ‘백계러인(白系露人)’의 모습과 병치한다. “그들이 색도變했고 그들에 風俗도變했다”면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처지를 안타깝게 바라본다. 이는 다른 시 「哈爾濱 驛頭에서」에서 만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러시아 운전수의 모습과도 겹쳐 있다. 「끼다야쓰카의 밤」의 마지막 연 “아아 잊을수는 없으리 이곤의밤 / 못손이 이곤에서 얼마나 이결뵈나 / 나는 化石처럼서 밤의 공기를마시다”와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적 주체는 ‘못손’이 잘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가 하얼빈에서 본 것은 만주국이 선전하던 국제도시로서의 ‘화려한’ 풍모가 아니었다. 방인근이 하

50) 俞濱洋 主編, 2004, 앞의 책, 145쪽.

51) 엄시우, 「秋夕墓祭參觀記」 『만선일보』, 1940.9.28.

얼빈에서 받은 인상 중 하나가 러시아인들의 극심한 빈부 격차였듯이, 심연수는 거리의 부랑자로 전락한 백계러인을 많이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백계러인’이 몰락해 가는 현실을 ‘러인공동묘지’에 묻힌 이들의 운명과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다.

“하루빈 온사람은 이골을 다본다니 / 바쓰에 몸을실고 墓地를 찾아갔오”는 하얼빈에서 러인공동묘지가 관광의 명소임을 명시한다. 그런데 입구에서 맞닥뜨린 것은 “많은거지 머리숙겨 경예하”는 모습이다. ‘많은 거지’ 가운데 대다수는 ‘백계러인’이었을 것이다.⁵²⁾ 단 2개의 수로 구성된 「露人共同墓地」 가운데 첫 수의 마지막 종장을 왜 이들에게 할애했는가는 다른 방식으로 잘 해석되지 않는다. 관광의 장소로 치장된 공원묘지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거지들이 구걸하는 곳으로 추락한다. 거지는 제국의 얼굴로 찾아온 관광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경예를 표하는, 피식민 주체들이다. 이 경예의 방향은 펴 잘못된 것이고 서글픈 것이라는 독해가 여기 깔려 있다. 만주국 공식 이데올로기인 민족협화(民族協和), 왕도주의(王道主義)의 이념은 매장되고 식민 자본의 논리가 부활한다. 두 번째 수인 “異域에 못인무덤 외물선 그靈이 / 파란과 싸호다가 죽은이 이세상을 / 남은일 다못하고 異域에 못어지다”에서 화자는 ‘파란’(波蘭), 즉 폴란드와의 전투에서 희생된 러시아인들을 애도한다.

심연수는 왜 러일전쟁(1904~1905)이 아닌, 폴란드-소비에트 전쟁을 언급했을까. 이는 당시 만주 관광의 핵심을 차지했던 러일전쟁 전적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략처럼 읽힌다.⁵³⁾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이어진 폴란드-소비에트 전쟁은 1795년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에 의해 영

52) 하얼빈에는 가난한 백계러시아인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다. 하얼빈의 도시 외곽인 마가구(마가구)와 부두구(埠頭區) 인근의 나하로프카 = 신안구(新安區) 등지에는 백계 러시아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나하로프카는 러시아인 빈민층 거주지였다. 김경일, 윤휘탁, 이동진, 임성모 지음, 2004, 앞의 책, 291쪽.

53) 러일전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순간, 당시 만주 관광에서 러일전쟁 전적지가 국민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던 맥락이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시인 스스로 원치 않았기에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러일전쟁이 아닌 폴란드-소비에트 전쟁을 언급함으로써 일본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토가 분할된 폴란드의 독립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혁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폴란드는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독립을 시도했고 1921년 3월의 강화조약으로 영토의 일부를 되찾았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하면 약자인 폴란드의 편에서 노래하는 것이 더 윤리적인 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심연수가 주목하고 있는 ‘백계러인’이 제1차 세계대전에 군대를 파병한 절대왕정을 지지했다가 1920년대 극심한 탄압을 받고 결국 망명한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⁵⁴⁾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폴란드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은 귀족출신 온건파였던 백군파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겠지만 이후 혁명기를 거치면서 조국으로부터 도리어 박해를 받아 망명한 뒤 파괴적인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 하얼빈은 그들의 몰락하는 운명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백계러인은 만주국에서 조선인과 더불어 최하층민이자 잠재적인 스파이로 간주되면서 늘 감시받는 존재였다.⁵⁵⁾ 백계러인의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의 낙차는 그들을 국제도시 하얼빈의 어두운 이면을 체현하는 대표적 소수민족이자 식민 자본주의의 타자로 각인시킨다.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러시아인들의 “남은일”이란 아마도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통일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일 터이다. 그런데 하얼빈의 백계러인들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현재가 러인공동묘지에 묻힌 이들의 무덤을 더 비극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이를테면 심연수는 거지들의 경계가 진정으로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54) 프레더릭 C. 코니·박원용 역, 2008, 『10월 혁명 : 볼셰비키 혁명의 기억과 형성』, 책세상, 111~113쪽.

55) 김경일, 윤취탁, 이동진, 임성모 지음, 2004, 앞의 책, 331쪽.

Ⅲ. 「우크라이나 寺院」과 망국(亡國) 백성들의 진정한 ‘나라’ 찾기

유치환(柳致環 : 1908~1967)은 1940년 3월 가족과 함께 만주 빈강성 연수현(延壽縣)으로 옮겨갔다. 그는 아나키스트들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항상 일제 관헌의 감시의 표적이”가 붙어 다녔고 자신의 만주행이 “탈출”이었다고 회고한다.⁵⁶⁾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유치환의 만주 이주는 일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만주로 도피한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⁵⁷⁾ 그러나 이와 달리 치정관계에 얽힌 개인적 도피였으며 형과 사돈의 재력, 만선척식회사 관리였던 김옥주의 도움으로 대농장의 관리인직을 맡는 등 생계형 이주가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한다.⁵⁸⁾ 만주에서 그는 농장 관리인으로 일하며 정미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주행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 경제적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항적 선택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유치환은 1945년 6월말 귀국했는데 만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만주에서 18여 편의 시를 발표했다. 대부분 『문장』, 『인문평론』, 『조광』 등에 발표되었고 그중 극히 일부만 만주에서 간행된 『재만조선시인집』, 『만주시인집』에 게재되었는데 재수록작을 제외하면 만주 문단에 발표한 것은 4편⁵⁹⁾에 불과하다. 만주에서도 유치환은 여전히 조선 문단을 의식하며 창작활동을 지속했다고 볼 수 있다. 재만 시기 발표작은 다음과 같다.

56) 유치환, 1959, 「차단의 시간에서」 『구름에 그린다』, 신홍출판사, 22~23쪽.

57) 박철석, 1999, 「유치환 평전」 『유치환』, 문학세계사, 190~191쪽; 오세영, 2000, 『유치환』, 건국대학교 출판부, 32~33쪽(조은주, 2010,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탈식민주의적 계보학 연구-일제말기 만주 관련 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1쪽).

58) 박태일, 2007,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 『어문학』 98권, 한국어문화회, 306~310쪽.

59) 「生命의 書 二章」(『재만조선시인집』), 「怒한 山」(『재만조선시인집』), 「陰獸」(『재만조선시인집』), 「하르빈도리공원」(『만주시인집』)이 이에 해당한다.

1940년 3월 이후	「夏日哀傷」(『문장』), 「編磬」(『문장』), 「鶴」(『조광』), 「曠野에 와서」(『인문평론』), 「兒喪」(『여성』), 「蜀葵가 있는 漁村」(『문장』), 「絶島」(『인문평론』), 「喬木」(『문장』), 「나비인양」(『문장』)
1941년	「歸故」(『문장』), 「春日遲遲」(『문장』)
1942년	「首」(『국민문학』), 「生命의 書 二章」(『재만조선시인집』), 「怒한山」(『재만조선시인집』), 「陰獸」(『재만조선시인집』) ⁶⁰⁾ , 「편지」(『문장』, 1940.3에 발표된 것을 『만주시인집』에 재수록), 「하르빈도리공원」(『만주시인집』), 「歸故」(재수록),
1943년	「前夜」(『춘추』, 1943.12.)
1944년	「北斗星」(『조광』, 1944.3.)

유치환은 만주국에 이주한 해인 1940년 시 9편을 발표했다. 이후 작품 수는 현저히 줄어 1941년에 2편, 1942년 5편, 1943년과 1944년에 각각 1편씩만 발표했다. 조선에서 한 해 평균 10편이 넘는 작품을 써왔던 점을 참고하면 이는 상당히 큰 변화이다. 특히 친일작품으로 평가되는 「수」, 「전야」, 「북두성」 등이 1942년부터 씌어져 문제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어떤 사상적 변화 때문이었는지 만주 문단의 검열제도가 제약으로 작동했던 것인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고 또 이 글의 관심사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실제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만주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작품을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1947년 간행된 제2시집 『생명의 서』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중에도 第2部는 내가 북만주로 도망하여 가서 살면서 (진정 도망입니다) 떠날 새 없이 허무 절망한 그곳 광야에 위협을 당하며 排泄한 것들입니다.⁶¹⁾

유치환은 제2시집 『생명의 서』 2부에 실린 작품들이 북만주에서 창작한

60) 『재만조선시인집』에 게재된 이 세 편은 1942년 1월 18~20일에 걸쳐 『만선일보』에 먼저 게재되었다.

61) 남송우 엮음, 2008, 『청마 유치환 전집』 I, 85~86쪽.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신이 “북만주로 도망하여 가서 살면서” 광야로부터 “위협을 당하며” 쓴 것들이라는 것이다. 만주행을 무엇으로부터 도망간 일종의 ‘쫓김’으로, 만주에서의 삶을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유치환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2부에 실린 작품은 총 25편이다. 뿐만 아니라 『청마시집』(1954)의 ‘祈禱歌 第四章’에 분류된 7편 역시 후기에서 “行李마당에서 偶然히 나타난 在滿 當時의 것이므로 實은 「生命의 序」에 屬할 셈”⁶³⁾이라고 밝히고 있기에 재만기 쓰인 작품 수는 대략 50여 편 가까이 된다. 이 가운데 만주의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가 표제로 등장하고 있는 작품으로 「郭爾羅斯後旗行」, 「極樂寺所見」, 「우크라이나寺院」, 「哈爾濱 道裡公園」, 「沙曼屯附近」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하얼빈’과 연결된다.⁶⁴⁾

특히 「極樂寺所見」, 「우크라이나寺院」, 「哈爾濱 道裡公園」은 하얼빈의 거리 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세 편의 시는 하얼빈의 명소를 거닐며 대상을 관조하는 시적 주체의 시선을 내장하고 있다. 극락사의 풍경에서 極樂의 의미를 젊음과 늙음의 대조를 통해 그린 「極樂寺所見」, 슬라브의 혼(魂)과 까마귀, 거지 등을 등장시키는 「哈爾濱 道裡公園」, 이국에 문헌 우크라이나인을 형상화한 「우크라이나 사원」 등에서 하얼빈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공간으로 한층 쓸쓸하게 그려진다. 유치환의 시에서 하얼빈은 만주국의 대표적인 근대 도시로 급속도로 근대화가 추진되었고 “동양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성과 세계성을 표방했던 공간이 아닌, 죽음의 이미지가 팽배한 허무주의적 공간이다. 본고는 특히 하얼빈의 ‘공동묘지’를 재현한, 「우크라이나 寺院」에 주목한다.

62) 조은주, 2010, 앞의 논문, 61쪽.

63) 유치환, 1954, 『청마시집』, 문성당, 244쪽.

64) 극락사, 우크라이나 사원, 하얼빈 도리공원은 하얼빈 도심에 위치한 곳들이다. 「郭爾羅斯後旗行」는 유치환의 설명에 의하면 하얼빈 서북 200km 부근의 몽골 부락인 ‘카글라스’를, 「沙曼屯附近」 역시 하얼빈의 근교 ‘沙曼屯’ 풍경을 제재로 삼았다.

할빈 南崗大路에 있는 이 寺院은 一九〇三年 할빈 建設當時의 犧牲者와 拳匪事件의 籠城者를 中心으로 우크라이나人만이 모시는 절이라고 한다

여름의 지나긴 한낮
고당은 적적히 그늘도 짙어

찾는 이 없는 鐵문 안엔
적은 얼굴들을 가우리고
피어 있는 새빨간 금전화

一九〇三年
하그리 먼 歲月은 아니언만

異國의 땅에 고이 바친 삶들이기에
十字架는 一齊이 西녘으로
꿈에도 못잊을 祖國을 向하여 눈감았나니

아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보리빛 먼 하늘이여

- 유치환, 「우크라이나 寺院」 전문(『생명의 서』, 1947)⁶⁵⁾

하얼빈은 유치환이 거주했던 濱江省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유치환은 농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하얼빈으로 종종 여행을 떠났던 것 같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원은 남강대로에 위치한 사원으로 하얼빈 건설당시의 희생자와 ‘拳匪事件의 籠城者’를 위한 “우크라이나人만이 모시는 절”이다. 이는 1922년 남강 新賣買街에 목조물로 건축되었다가 1930년 東大直街로 옮겨 벽돌건물로 새롭게 건축된 聖母蜚蠊教堂(烏克蘭教堂)을 일컫는다.⁶⁶⁾ 우크라이나 사원은 러시아의 유명 건축가인 지다노프(Zhdanov)의

65) 남송우 엮음, 2008, 『청마 유치환 전집』 I, 136쪽.

66) 서여명, 2008, 「청마 유치환의 북만 기행시」 『어문연구』 36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24쪽.

작품으로 비잔틴식 러시아 정교회(正教會) 사원이다. 이 사원은 우크라이나인 공동묘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앞서 심연수가 그랬던 러인공동묘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⁶⁸⁾ 주지한바 외국인 공동묘지 가운데 심연수가 특별히 ‘러인공동묘지’를 언급한 이유는 하얼빈에서 백계러인이 차지하던 의미와 시인의 특별한 문학적 정신이 어느 선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치환이 東大直街의 공동묘지 중에서 대표적 관광 코스였던 러인공동묘지 대신 우크라이나 묘지(사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 2] 우크라이나 사원⁶⁷⁾

「우크라이나 사원」의 배경은 여름이지만 햇볕 하나 없는 그늘진 사원은 한적하다 못해 쓸쓸한 기운이 감돈다. 철문 사이로 보이는 선홍빛깔의 금전화는 애처롭다. 심지어 “적은 얼굴들을 가우리고” 있다는 표현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위축된 내면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작품 앞머리에 유치환은 우크라이나 사원이 1903년 하얼빈 건설당시의 희생자와 권비사건(拳匪事件)의 농성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3연에서 1903년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인 묘지에 러일전쟁과 1911년 페스트 등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도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⁶⁹⁾ 우크라이나 사원의 묘지에 묻힌 이들은 1896~1903년 하얼빈에 중동철도가 건설될 당시 희생된 것이다. 1896년부터 부설하기 시작된 러시아의 중동철도(中東鐵道)는 1900년 의화단(義和團)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유치환이 언급하는 “拳匪事件”은

67) 俞濱洋 主編, 2004, 앞의 책, 129쪽.

68) 俞濱洋 主編, 2004, 앞의 책, 145쪽.

69) 유치환의 설명, 서여명의 논의, 『하얼빈 인상』의 설명 등에 따르면 러인공동묘지와 우크라이나 사원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서여명은 우크라이나 묘지에 러일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이 함께 묻혀있다고 설명한다. 추정일 뿐이지만 러인공동묘지 안에 우크라이나인 공동묘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바로 이 의화단에 의해 우크라이나인이 희생된 사건이다.⁷⁰⁾

의화단 운동은 청말(清末) 중국에서 농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펼쳐진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의화단이 중동철도를 파괴하자 러시아 군대는 만주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이는 1902년 영일동맹, 1904년 러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⁷¹⁾ 반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의화단이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열강을 적극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하얼빈에서 의화단 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중동철도 직원들과 선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크라이나 사원’은 철도 제국주의의 역사와 이에 맞선 반제국주의 운동이 관통하는 현장이다. 유치환의 시선은 그러한 역사의 거친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있던 ‘금전화’처럼 미약한 소수 민족을 향한다. 그가 러인공동묘지가 아닌 우크라이나 사원을 시의 제재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인은 당시 하얼빈에 모여든 많은 “나라가 없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소수민족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하르빈」은 진정 나라 없는 백성들의 거리였습니다. 두 겹으로 나라를 잃고 영화롭던 옛날의 추억 속에 연명하는 육중한 白系露人과 어디고 인간의 堆積物 같이 번식해 사는 중국인과 안하 무인과 거만스런 왜인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수단으로서도 약착 같이 다가 붙어 살려는 우리 겨레.⁷²⁾

유치환은 하얼빈을 “진정 나라 없는 백성들의 거리”라고 말한다. 나라를 잃고 추억 속에 연명하는 백계러인에서부터 퇴적물 같이 번식해 가는 중국인, 거만한 일본인, 그 속에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으려 아등바등하는 조선인까지, 이들에게 모두 ‘나라가 없다’고 표현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70) 권봉(拳棒)을 연습하며 다소 낙후된 투쟁방식을 택했기에 ‘권비(拳匪)’라고 비하되기도 했다(루선, 홍석표 역, 2005, 『화개집』, 선학사, 2번 역주, 312쪽).

71) 박완호, 2006, 『영화로 이해하는 중국 근현대』, 르네상스, 36쪽; 허홍범, 2006, 『군함 이야기』, 좋은책만들기, 125쪽.

72) 남송우 엮음, 2008, 『평야의 생리』 『청마 유치환 전집』 V, 296~297쪽.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 근거나 기반 같은 것이다. 하얼빈의 우크라이나인 역시 표면적으로 나라가 없는 백성이다. 우크라이나는 고대부터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1922년 12월 구소련이 창설될 때 소련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런데 1928년 이후 스탈린의 농업집단지화 정책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저항하면서 지독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를 비롯하여 부농, 공산당, 작가, 학자, 정신적 지도자였던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혹하게 처형당했고 인위적인 기아 정책으로 농민 800만 명이 아사(餓死)당했다.⁷³⁾

「우크라이나 사원」이 쓰여질 무렵 우크라이나인은 독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의화단에 의한 피해를 더하면 이들의 지난한 역사를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은 수증되고도 남는다. 그런데 유치환은 묘지가 아닌 ‘우크라이나 사원’, 즉 정교회를 그 시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죽음에 대한 형상화와 연민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폭력적인 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정신적 기반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처럼 읽힌다. 그가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을 러일전쟁이 아닌 1903년 권비사건으로 애써 제한한 이유도 이와 연결된다. ‘사원’을 표제로 삼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치환이 재만 시기를 회상하면서 「우크라이나 사원」을 창작하던 당시 심정을 토로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때 내 자신을 스스로가 주체 못하는 밑 없는 절망 속에서 아프게도 나를 불러 손짓하고 또한 내 스스로 그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는 망향의 먼 향수는 어쩌면 현실의 나의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돌아가 의지할 그러한 정신의 안주지가 아니었던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국의 혼령들이 귀의한 혼령의 고토마저 내게는 내 것인 듯 애달게도 간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 마침내 영혼이 이같이 돌아가 귀의할 장소와 방향을 가졌음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짐승처럼 영혼의 이 돌

73) 최호근, 2005, 『제노사이드』, 책세상, 253쪽; 로버트 서비스·윤길순 역, 2007, 『스탈린 강철 권력』, 교양인, 567쪽.

아가 의지할 곳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⁷⁴⁾

그는 만주에서 자신을 포함해 디아스포라가 느끼는 “망향의 먼 향수”는 현실적 맥락에 놓인 고향의식이나 모국애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향수는 “영혼이 돌아가 의지할 그러한 정신의 안주지”, 진정한 ‘조국’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국은 내셔널리즘의 범주를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디아스포라의 시적 정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寺院」은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인을 애도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애도의 방향은 진정한 ‘조국’, 엄밀히 말하자면 ‘나라’(공동체)를 향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인의 공동묘지와 사원에서 그들의 내밀한 정신적 안주지를 발견한 시인의 시선에서는 소수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감과 연대의식이 읽힌다. ‘영혼’이 귀의할 장소와 방향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공동체 재건의 문제, “즉 정신의 안주지”으로서 진정한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연동된 것이다.

하얼빈과 결부된 다른 시 「郭爾羅斯後旗行」, 「沙曼屯附近」, 「濱綏 開道」 등이 대도시 외곽의 원시적 자연 풍경과 몽골 부락 ‘카클라스’를 인상적으로 형상화한 점도 「우크라이나 사원」에 내재된 문학 정신과 연결된다. 유치환은 하얼빈에서 중심부에서 이탈했거나 철저히 소외된 공간과 민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국제도시 하얼빈의 이중성, 중층성에 대한 시인 특유의 통찰이 아니었을까. 북만주 체험을 기록했다고 밝힌 『생명의 서』 2부는 전반적으로 허무주의적 분위기로 채색되었지만 마지막 시로 선택된 「나는 믿어 좋으랴」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가네야마’, ‘마쓰하라’ 등으로 창씨개명하고 만주식 ‘검정 胡服’을 입은 “오랜 忍辱의 이 슬픈 四十代들은 / 父母도 故郷도 모르는이”들이다. 그들에게서 조선인의 얼굴은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이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은 “故國 소식을 들은 밤”에 “제각기 어렵פות한 記憶을 더듬어 이야기에

74) 남송우 엮음, 2008, 「평야의 생리」 『청마 유치환 전집』 V, 298쪽.

꽃”을 피우고, “뺨酒에 돼지 발쪽”을 먹고 고향의 전통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벌인다. 이러한 흥겨운 장면에서 상실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체는 이야기와 기억을 통해 일순간 재건된다. 이를테면 「나는 믿어 좋으랴」는 「우크라이나 사원」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응답과도 같은 텍스트이다.

IV. 맺음말 : 피식민지 지식인 주체의 하얼빈 공동묘지 산책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930~40년대 만주 관광의 필수 코스 가운데 하나는 ‘묘지’였다. 예컨대 ‘白玉山 表忠塔’(여순), ‘奉天大會戰 忠靈塔’(봉천), ‘寬城子’(신경), ‘南嶺’(신경), ‘沖·橫川 兩志士의 碑’(하얼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의 대상으로서 ‘묘지’는 대부분 빈 무덤들, 즉 전쟁 유적지와 전사자를 위한 참배지였다. 이는 만주 관광이 궁극적으로 제국 의식을 배양하는 일종의 성지순례였음을 방증한다. 1942년 <조선문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개척시찰단으로 만주를 방문했던 작가들, 예컨대 장혁주, 이기영, 이태준, 함대훈, 정인택 등도 만주의 집단농장에서 “원시된 자연을 변개하는 위대한 창조성”⁷⁵⁾이라는 고안된 이미지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관광자의 범주에 포괄된다. 이 글에서 주목한 심연수의 시 「러인공동묘지」와 유치환의 시 「우크라이나 사원」은 그러한 제국주의적 관광의 시선과 차별화된 피식민지 지식인 주체의 시선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두 작품은 근대 국민국가의 상징물로서의 묘지가 아닌, 공원묘지인 외국인 ‘공동묘지’를 재현한다. 이는 1920~30년대 일본과 조선에서 담론화되었던 공동묘지의 공원화 양상과도 맞물려 있었다. 1919년부터 시행된 ‘묘지구획’ 이래 묘지는 위생상 위험하고 더러운 공간이 되었지만,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외곽의 묘지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규정됨으로써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야 했다. 염상섭이 동경의 雜司谷 묘지를 언급하면서 “한정(間

75) 이기영,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 1939.11.

靜)하고 정연한 묘지 사이를 이리저리 거닐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여 보는 것은 흥미라고까지 하는 것은 우스운 말이지만 여하간 나에게서는 현실에서 떠나선 어떠한 「완전한 자유」의 순간을 얻는 기회⁷⁶⁾였다고 말했듯이, 조선과 만주의 근대적 식민지-도시에서도 묘지는 산보를 즐기고 문학 텍스트가 탄생하는 공간이 되었다. 심연수와 유치환의 시가 공동묘지를 중심체재로 삼은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러인공동묘지’와 ‘우크라이나인 공동묘지’(사원)가 공통적으로 1930~40년대 만주국의 대표적 국제도시인 하얼빈(哈爾濱)에 위치한 묘지라는 점이었다. 화려한 국제도시로 부상되었던 하얼빈의 어두운 이면은 러인공동묘지(심연수)와 우크라이나인 공동묘지(유치환)에서 폭로된다. 거지로 전략해 제국의 관광자에서 경예를 표하는 백계러인(白系露人), 타국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며 희생된 우크라이나인 등은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인 민족협화와 왕도주의의 허구성을 내파한다. 백계러인과 우크라이나인은 제국주의와 식민 자본주의의 타자이자 나라를 잃고 몰락한 소수민족을 표상한다. 심연수와 유치환은 하얼빈 중심거리에 위치한, 그러나 실상 가장 소외되어 있던 두 민족의 공동묘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진정한 “정신의 안주지”로서의 공동체 재건의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묘지’의 재현은 조선인 작가의 만주 체험이 제국의 2인자로서의 ‘관광’이 아닌, ‘산책’이 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음미될 필요가 있다.

투고일 : 2014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5일

76) 염상섭, 「문인과 묘지」, 『삼천리』 6권 7호, 1934.6.

참고문헌

- 김경일·윤희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 김백영·조정우, 2014, 「제국일본의 선민(鮮滿) 공식 관광루트와 관광안내서」 『일본 역사연구』 제39집, 일본사학회
- 김재용, 2004,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 김해웅, 2006, 『심연수 시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 남송우·염유, 2008, 박철석 감수, 『청마 유치환 전집』 I-VI, 국학자료원
- 다카무라 료헤이, 2000,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5,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로버트 서비스·윤길순 역, 2007, 『스탈린 강철 권력』, 교양인
- 루신, 홍석표 역, 2005, 『화개집』, 선학사
- 류교열, 2011, 「1930년대 식민지 해방도시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죽음’의 폴리틱스」 『일어일문학』 49, 대한어일문학회
- 박완호, 2006, 『영화로 이해하는 중국 근현대』, 르네상스
- 박철석, 1999, 「유치환 평전」 『유치환』, 문학세계사
- 박태일, 2007,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 『어문학』 98권, 한국어문학회
-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2003,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 벤야민·차봉희 역, 1980, 『현대사회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 서여명, 2008, 「청마 유치환의 북만 기행시」 『어문연구』 36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소재영 편, 1989, 『간도유랑 40년』, 조선일보사
- 신지은, 2009, 「도시 산책자: 자기 유희와 함께하기의 경계에서 방랑/황하는 존재」 『문학과사회』 제6권
- 에밀 부르드레·정진국 옮김,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 오세영, 2000, 『유치환』, 건국대학교 출판부
- 우미영, 2010, 「전시되는 제국과 피식민 주체의 여행-1930년대 만주수학여행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8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 유치환, 1954, 『청마시집』, 문성당
- _____, 1959, 『구름에 그린다』, 신흥출판사
- 이상규 편, 2004,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심연수 문학편』, 중국조선민족 문화예술출판사

- 이성욱, 2002, 「한국근대문학과 도시성 문제 :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4, 「근대 일본 공원묘지의 탄생」 『동양사학연구』 127, 동양사학회
- 임성모, 2011,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수학여행 -네트워크와 제국의식」 『동북아역사논총』 31호, 동북아역사재단
- 정대영, 2014, 「일제 식민지기 장묘제도의 변화와 ‘근대성’의 이면」,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조성운 외, 2011, 『시선의 탄생』, 선인
- 조은주, 2013,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최호근, 2005, 『제노사이드』, 책세상
- 프레더릭 C. 코니 · 박원용 역, 2008, 『10월 혁명 : 볼셰비키 혁명의 기억과 형성』, 책세상
- 하시야 히로시 · 김계정 옮김, 2005,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 한석정 · 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 허홍범, 2006, 『군함이야기』, 좋은책만들기
- 홍윤기, 2006, 「심연수와 윤동주의 비교 연구」 『한국시문학』 17, 한국시문학회
- 황규수, 2008, 「심연수의 삶과 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26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_____, 2008, 『심연수 시의 원전 비평』, 한국학술정보
- 황주영, 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H.N. 알렌 · 신복룡 옮김, 1999, 『조선건문기』, 집문당
- J.S. 게일 · 신복룡 옮김, 1999, 『전기의 조선』, 집문당
- Nguyen, Thi Hien, 2013, 「동아시아 근대시에 나타난 산책가와 식민지 도시 인식 연구 : 경성, 하노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俞濱洋 主編, 2004, 『哈爾濱印象(上)1897-1949』, 중국건축공업출판사

■ Abstract ■

A Study on the Walk to Cemetery, Tourism of Death or
Death of Tourism

– Focusing on Two Works of Poem, Shim Yeonsu’s ‘*Roin-gongdongmyoji*(a Cemetery for Russians)’ and Yu Chihwan’s ‘*Ukraine Temple*’ –

Cho, Eun-Joo

This paper examines two works of poem, Shim Yeonsu’s ‘*Roin-gongdongmyoji*(a cemetery for Russians)’ and Yu Chihwan’s ‘*Ukraine Temple*’, analyzes why the poets chose the theme of a park-like cemetery, and explores the literary essence of the poem and its meaning. These two works portray a cemetery for Russians and a Ukraine temple within a cemetery for Ukraine located in Nangang District of Harbin in China, and have received attention for reproduction of a cemetery. During the 1920s and 30s, cities grew rapidly in Japan and Chosun, and efforts were made to beautify graveyards to look like a park. In ‘*Myoji-hwajang-maejanggup-hwajang-chuichegyuchik*(墓地火葬埋葬及火葬取締規則)’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1912, cemeteries were described as filthy and dangerous. However, soon after, new discourses were formed to view them as a scenic place. Not surprisingly, cemeteries were included in the itinerary of Manchuria tour which became very popular in the 1930s. Still, official tour routes of Chosun and Manchuria, travel guides, and the itinerary of school excursions in Manchuria show that only a limited part of park-like cemeteries were visited during the tour. As a tour destination, most of the cemeteries were empty graves, that is, a war memorial or a place to commemorate war veterans. In this context, the two poem that described cemeteries in Manchuria that are not related to war or battlefield are noteworthy. These cemeteries were not seen as a ‘tour site’ from the perspective of an empire, but

portrayed from a viewpoint of an ‘intellectual’ of the colonized country, keeping a distance from the object. The dark side of the splendid metropolis, Harbin, is revealed in cemeteries for Russians(Shim Yeonsu) and Ukraine(Yu Chihwan). A White Russian beggar that pays respect at a tour site of an empire, and Ukraine people who are sacrificed in a foreign country expose the folly of the Manchuria ideology. These are people of minority repressed under colonial capitalism, who were deprived of their home country and ruined. The two poets portray cemeteries at the center of Harbin and invite readers to think about how to truly rebuild a community, and what is the genuine meaning of a ‘country’ as a resting place for the soul.

Key words : Shim Yeonsu, Yu Chihwan, *Roin-gongdongmyoji*(a cemetery for Russians), *Ukraine Temple*, Harbin, cemetery, tour site, people of minority, community